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파이널 온라인 베스트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30%	31번	(독서 : 기술) - 세부 추론
오답률 4위	34%	19번	(독서 : 인문) - 지문 관점과 <보기>의 관점 비교 분석
오답률 3위	40%	32번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2위	48%	40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1위	58%	41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문학] 고전소설 : 조위한, '최척전' / 현대시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문법] 13번, 14번, 15번

[독서] 사회 지문 : 등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해설 + 분석 자료)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30%) 예측] : 독서-기술 31번 문항

<b>[세부 추론]</b>	
<b>[Killer-Point]</b>	<p><b>31.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b></p> <p>①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② 각 군집의 평균값이 서로 동일해지면 과정이 종료된다.                  ③ 군집의 개수를 늘릴수록 각 군집의 분산이 커질 것이다.                  ④ 이상치를 군집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⑤ 초기에 설정하는 중심값이 다르면 각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⑤]</b></p>
	<p>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일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만 잘못 해도 의문사 당하기 좋은 유형의 문제이다. 거기에 답이 5번에 있다 보니 1~4번 선지를 지워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추론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추론 문제라는 것은 선지의 근거가 지문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지에서 가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 상황에 맞게 사고를 진행시켜 선지의 진술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p> <p>예를 들어 3번 선지를 보자. '분산'은 말하자면 '군집의 크기(포함하는 데이터의 양)'이다. 즉 '분산'이 커진다는 것은 각 군집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과 같다.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에서는 중심값을 일종의 기준으로 유사한 데이터를 늘리므로, 군집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 즉 기준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 데이터들은 더 세밀한 기준에 따라 나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 군집의 크기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다. 데이터들을 2 묶음으로 나눌지, 100 묶음으로 나눌지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연상이 가능할 것이다.</p> <p>다음으로 5번 선지를 보자. 5문단에 따르면 초기에 중심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군집화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의 단점이다. 군집화의 결과(=주어진 데이터 집합이 유사한 것끼리 묶여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뉜 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 각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가 다르다는 뜻이다. 따라서 초기에 설정하는 중심값이 다르면 각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p>
<b>[유사 평가원 기출] - 2013학년도 수능</b>	
<p>음성 인식 기술은 컴퓨터가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인식하여 해당 문자열로 바꾸는 기술이다. 사람의 말은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볼 수 있다. 컴퓨터는 각 단어의 음소들의 배열을 '기준패턴'으로 미리 저장해 두고, 이를 입력된 음성에서 추출한 '입력 패턴'과 비교하여 단어를 인식한다.</p> <p>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입력된 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한 후 음성 신호만 추출한다. 그런 다음 음성 신호를 하나의 음소로 판단되는 구간인 '음소 추정 구간'들의 배열로 바꾸어 준다. 그런데 음성 신호를 음소 단위로 정확히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음성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의 '단위 구간'으로 나누고, 이 단위 구간 하나만으로도 또는 연속된 단위 구간을 이어 붙여 음소 추정 구간들을 만든다.</p> <p>음성의 비교는 음소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음소 추정 구간에 해당하는 음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각 구간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한다. 각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하는 특징 벡터는 1개이다. 특징 벡터는 음소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음소 추정 구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1개로만 추출된다. 특징 벡터는 음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정보들을 이용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정보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음소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필요한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p> <p>음성을 인식하려면 입력 패턴의 특징 벡터와 기준 패턴의 특징 벡터를 비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음소</p>	

추정 구간이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와 동일한 개수가 되도록 단위 구간을 조합한다. 그리고 각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를 구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입력된 음성 신호를 S1, S2, S3 3개의 단위 구간으로 나눈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일 비교하려는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라면 3개의 음소 추정 구간으로부터 입력 패턴이 구성되어야 하므로 [S1, S2, S3]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그런 다음 이것을 순서대로 기준 패턴의 음소와 일대일 대응시키고 각각의 특징 벡터의 차이를 구한 뒤 이것들을 모두 합하여 '패턴 거리'를 구한다. 만일 기준 패턴의 음소가 2개라면 3개의 단위 구간을 조합하여 [S1, S2~S3], [S1~S2, S3]로 2개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 이와 같이 1개의 기준 패턴에 대해 여러 개의 입력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 사이의 패턴 거리를 모두 구하고, 그중의 최솟값을 그 기준 패턴에 대한 패턴 거리로 정한다. 만일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보다 크면 두 패턴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여 그 개수를 늘리면 음소 추정 구간을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기준 패턴에 대해 패턴 거리를 구하고 그중 최솟값이 되는 기준 패턴을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이 기준 패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입력된 음성 신호에 대해 인식된 단어로 출력한다.

#### 45. ㉠의 처리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징 벡터를 구성하는 정보의 가짓수의 감소
- ② 기준 패턴을 구성하는 음소 개수의 감소
- ③ 저장된 기준 패턴 가짓수의 감소
- ④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의 감소
- ⑤ 음소 추정 구간 개수의 감소

[정답 : ④]

[오답률 4위(34%) 예측] : 독서-인문 19번 문항

[지문 관점과 <보기>의 관점 비교 분석]

19. <보기>는 전쟁의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갑**: 인간의 본성은 사악하며 전쟁은 사악한 인간이 권력을 추구하려는 욕구로부터 발생한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간의 평화 정신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 **을**: 전쟁의 궁극적 원인은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 있다. 전쟁은 국제 관계를 조율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공통의 법적인 기구의 부재로 인해 평화적인 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국제 상황에 기인한다.
- **병**: 전쟁의 원인은 각각의 국가의 내부 정치 체제에서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그 민주성으로 인해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에 비하여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Killer-Point]

- ① '갑'이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서 전쟁의 원인을 찾는 것은 칸트가 말한 전쟁의 인위적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② '을'이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공통 기구의 부재를 전쟁의 원인으로 본 것은 국제법의 제정으로 국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칸트의 견해와 상반되는군.
- ③ '을'이 국제적 무정부 상태가 평화적 분쟁 해결을 가로막는다고 본 것은 가공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개별 국가들을 규율할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루소의 견해와 일치하는군.
- ④ '병'이 민주주의 체제를 비민주적인 체제보다 선호하는 것은 국제 사회가 자연 상태를 벗어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칸트가 국제 관계의 법제화를 내건 이유와 유사하군.
- ⑤ '병'이 전쟁의 원인을 개별 국가들의 내부 정치 체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 것은 개별 국가들이 온전한 정치 체제를 수립하더라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루소의 견해와 불일치하는군.

[정답 : ⑤]

지문에서 '루소'는 두 종류의 '평화'를 제시한다.

1. 개별 국가 단위의 평화
2. 국제적인 평화

여기서 '전쟁'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평화는 '국제적인 평화'이다. 즉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충돌이므로, 개별 국가 안에서 '일반 의지에 따르는 정치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그 개별 국가들 사이의 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평화를 찾아 내느냐, 아니면 1이 2를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4번 선지의 '국제 관계의 법제화'만 놓치지 않고 잘 파악했다면, 정답 선지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은 어렵지 않게 지울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5번 선지로 돌아와서, <보기>의 '병'은 전쟁의 원인을 각 국가의 내부 정치 체제에서 찾는다.

즉 국가의 내부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 만들어지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칸트의 주장(모든 국가의 공화국화)과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루소의 주장과는 다르다. 위에서 말했듯이 루소는 '개별 국가의 평화'가 '국제적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유사 평가원 기출] - 2004학년도 수능**

자연은 인간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여 인간의 모든 소질을 계발하도록 한다. 사회의 질서는 이 갈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갈등은 인간의 반사회적 사회성 때문에 초래된다. 반사회적 사회성이란 한편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반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이루어 살려는 인간의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성향은 분명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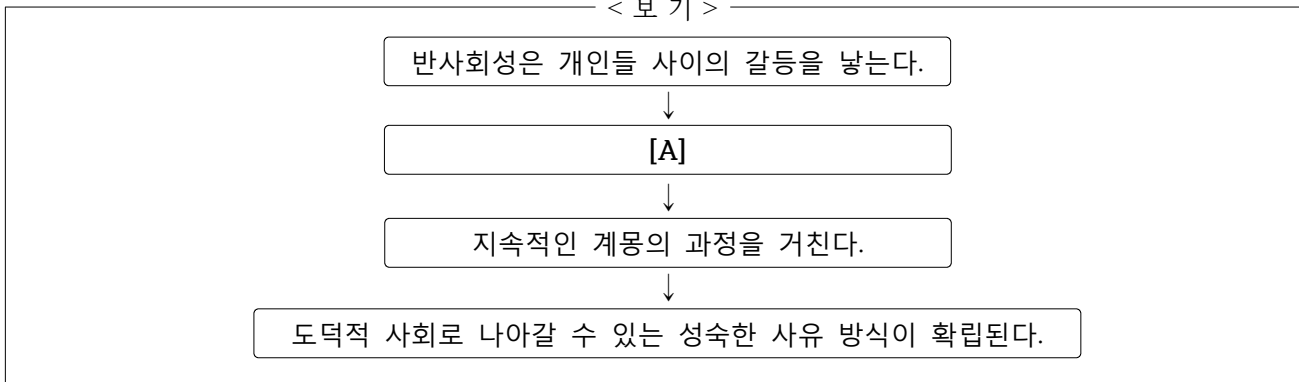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회화하고자 한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자신의 자연적 소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개별화하거나 고립시키려는 강한 성향도 있다. 이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만 행위하려는 반사회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항하려는 성향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신도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게 되리라 예상한다.

이러한 저항을 통하여 인간은 모든 능력을 일깨우고, 나태해지려는 성향을 극복하며, 명예욕이나 지배욕, 소유욕 등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리하여 동시대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나 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진정한 진보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때부터 모든 능력이 점차 계발되고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능력도 형성된다. 나아가 자연적 소질에 의해 도덕성을 어렵풋하게 느끼기만 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계몽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든다. 그 결과 자연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결합된 사회를 도덕적인 전체로 바꿀 수 있는 사유 방식이 확립된다.

인간에게 이러한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은 꽃피지 못하고 만족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목가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양처럼 선량한 기질의 사람들은 가축 이상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 부여하기 힘들 것이다. 자연 상태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연적 소질을 계발하여 창조의 공백을 메울 때, 인간의 가치는 상승되기 때문이다.

불화와 시기와 경쟁을 일삼는 허영심, 막힐 줄 모르는 소유욕과 지배욕을 있게 한 자연에 감사하라! 인간은 조화를 원한다. 그러나 자연은 불화를 원한다. 자연은 무엇이 인간을 위해 좋은 것인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안락하고 만족스럽게 살고자 한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이 나태와 수동적인 만족감으로부터 벗어나 노동과 고난 속으로 돌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은 인간이 노동과 고난으로부터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한다.

**50. 밑글에 제시된 '진보'의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성을 계발한다.
- ② 갈등을 계기로 조화롭고 목가적인 삶에 이른다.
- ③ 갈등을 극복할 도덕적 실천 원리를 인식한다.
- ④ 갈등의 과정 속에서 자연적 소질이 계발된다.
- ⑤ 갈등을 극복하여 사회를 이룬다.

**[정답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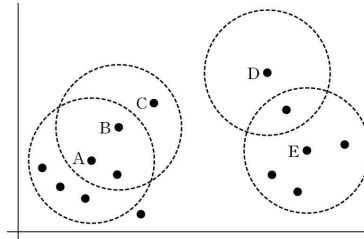
[오답률 3위(약 40%) 예측] : 독서-기술 32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3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각 데이터의 특질이 2개인 데이터 집합을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으로 군집화하려고 한다. 거리 척도는 유클리드 거리로,  $\epsilon$ -거리는 2, MinPts는 5로 정했을 때, 데이터 집합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2차원 좌표 평면에 나타났다. 단, 검은색 점은 각각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점선으로 그려진 원은 각각 데이터 A, B, D, E를 중심으로 하고 반경이  $\epsilon$ -거리인 원을 나타낸다.



- ① 데이터 A와 데이터 E는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하겠군.
- ② 데이터 A와 B는 각각 코어 데이터와 경계 데이터이겠군.
- ③ 데이터 C와 D는 모두 이상치로, 별도의 분석 대상이 되겠군.
- ④  $\epsilon$ -거리만 2보다 크게 하면 군집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겠군.
- ⑤ MinPts만 5보다 크게 하면 이상치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겠군.

[Killer-Point]

[정답 : ④]

그림의 점선으로 된 원 밖에 있는 데이터(좌측 하단)만 이상치로 생각해서 3번 선지를 정답으로 찍은 학생이 있다면, 지문에 근거가 있을 때는 근거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3번 선지를 판단하려면 '이상치'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지문에서 '이상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 보자.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으로부터 반경  $\epsilon$ -거리 이내에 MinPts 미만의 데이터만 있는 데이터는 이상치로 치부되어 별도의 분석 대상이 된다.'

즉 '이상치'는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아야' 하고, ' $\epsilon$ -거리 이내에 MinPts 미만의 데이터만 있어야' 한다. <보기>의 그림에서는 군집이 몇 개 나타날까? 2개이다. A와 E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군집을 나타낸다. 그럼 B와 D를 중심으로 하는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경계 데이터의 데이터 포함 범위를 의미한다. 즉 B와 D를 중심으로 하는 원은 '군집'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C와 D는 군집에 속한 데이터가 아니게 된다. 그리고 2 거리 이내에 5개의 데이터도 없으므로, '이상치'로 치부되는 것이 맞다.

3번 선지의 판단은 위와 같이 참고해야할 개념이 많아 까다로웠을 수 있지만, 정답 선지의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고 과정 자체는 31번 문제와 유사하다. 포함 범위의 변화를 봐야 한다.

$\epsilon$ -거리를 2보다 크게 하면 군집의 포함 범위가 커진다. 즉 A와 E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 길어진다는 뜻이다. 만약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아주 커져서 그림 전체를 포함하는 크기가 되면, 그림에서 나타나는 군집은 오로지 1개가 된다. 따라서  $\epsilon$ -거리를 늘렸을 때 군집의 개수가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률 2위(약 48%) 예측] : 독서-사회 40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b>[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lt;보기&gt;의 상황 분석]</b>																															
<b>[Killer-Point]</b>	<p><b>40. 밑글을 바탕으로 &lt;보기&gt;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lt; 보기 &gt; —</p> <p>A와 B는 A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B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이후 B는 계약서에 기재되는 매수인이 되어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년 후에 B는 A의 의사를 묻지 않고 D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p> </div> <p>① A와 B의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이므로 B의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언제나 무효이겠군.</p> <p>② C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B와 C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B와 D의 매매 계약도 무효가 되겠군.</p> <p>③ C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B가 D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의 매도한 것은 C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겠군.</p> <p>④ C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B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D에게 해당 부동산 매도한 것이므로 A에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군.</p> <p>⑤ C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B가 D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의 매도한 것은 C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B는 C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겠군.</p> <p style="text-align: right;"><b>[정답 : ③]</b></p>																														
	<p>&lt;보기&gt;의 사례는 '계약 명의신탁'의 사례이며, 이는 지문에서 이미 한 번 본 사례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정리해둔 내용에 A~D를 적용시키기만 하면 된다.</p> <p>물론 지문에서 정리가 다 안 된 상태로 문제까지 왔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lt;보기&gt;의 상황을 끌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lt;보기&gt;를 기반으로 정리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놓고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table style="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매도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탁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탁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C</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도인]</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수인]</td> <td></td> <td></td> </tr> </table> </div> <p>지문에도 나왔듯이, 이때 C(=매도인)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C(=매도인)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유효가 된다. 따라서 B(=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러므로 B가 D에게 임의 매도한 것은 C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C는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B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p>	[매도인]		[수탁자]		[신탁자]	C	⇔	B	⇔	A			[매도인]					↑↓					D					[매수인]		
	[매도인]		[수탁자]		[신탁자]																										
C	⇔	B	⇔	A																											
		[매도인]																													
		↑↓																													
		D																													
		[매수인]																													
<p><b>[유사한 기출 사례] - 2020학년도 9월 모평</b></p> <p>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p>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30.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③]

[오답률 1위(약 58%) 예측] : 독서-사회 41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1. 밑글의 ㉞와 <보기>의 ㉜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명의신탁의 유형 중에는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신탁자라는 점, 즉 매매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신탁자라는 점만 빼고 다른 점은 모두 계약 명의신탁과 동일한 ㉜삼자간 명의신탁이 있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지만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되므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매도인은 언제나 누가 등기 명의자가 되는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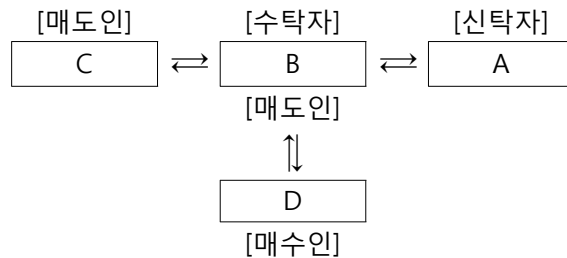
- ① ㉞와 ㉜에 대한 법률 규정은 매매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에 따라 매매 계약의 효력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군.
- ② ㉞와 ㉜에 대한 법률 규정은 명의신탁 약정을 기초로 한 매매 계약의 무효화 여부와 상관 없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군.
- ③ ㉞와 ㉜에 대한 법률 규정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군.
- ④ ㉞와 ㉜에 대한 법률 규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면 매도인이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군.
- ⑤ ㉞와 ㉜에 대한 법률 규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군.

[정답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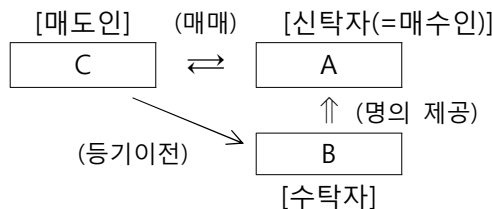
[Killer-Point]

<보기>에서 새로운 상황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지문에 제시된 사례와의 1 : 1 대응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지문에 있는 '계약 명의신탁'의 사례를 조금만 바꾸면 <보기>의 사례를 만들 수 있다.

㉞'계약 명의신탁'



㉜'삼자간 명의신탁'



<보기>에서 '삼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번 선지에서 ㉗와 ㉘의 매매 계약에 효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㉗에서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매매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  
 즉 이때는 매매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와 무관하게 매매 계약의 효력이 동일하게(유효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번 선지에서처럼 매수인이 신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따라 매매 계약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

#### [유사한 사례] - 2020년도 7월 학평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내심(內心)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법률 행위로서,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 의사에 이어 표시행위까지의 과정을 거치며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A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서 B 소유의 토지를 사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의사표시 과정을 살펴보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는 A의 생각은 '동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동기로 인해 A가 B 소유의 토지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효과적의사'이다. 또한 이러한 '효과적의사'를 B에게 전달해야겠다는 A의 생각은 '표시의사'이며, 이렇게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 계약서 작성이라는 행위를 의도하거나 인식하는 것은 '행위의사'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사를 토대로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표시행위'이다.

의사표시 과정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법률 행위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의사표시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의사주의', '표시주의', '효력주의'로 나뉜다.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의사표시자 내심의 효과적의사, 즉 의사표시자의 진의로 파악한다. 그런데 의사주의의 관점을 취할 경우 의사표시자의 의사는 보호되지만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표시주의는 의사표시자의 표시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표시의 본질을 표시행위로 파악한다. 한편 의사와 표시는 일체로서 양자 모두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를 효력주의라 한다. 이는 의사와 표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존의 인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효력주의에 따르면 표시행위는 의사의 단순한 외부적인 표지가 아니라 의사를 완성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들 수 있다. 착오의 기본 유형은 착오가 의사표시의 과정에서 효과적의사의 결정, 표시행위의 이해, 표시행위 중 어느 단계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동기의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자가 효과적의사 결정 단계에서 의미 있는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이다. 금반지를 사려고 했는데 도금 반지를 금반지인 줄 잘못 인식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내용의 착오는 의사표시자가 표시하고자 의도한 대로 표시행위를 하였지만, 표시행위 이해 단계에서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여 생긴 경우이다. 금반지의 가격은 100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유로와 달러가 같은 가치를 지닌 화폐 단위인 줄로 잘못 알고 금반지를 100유로로 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시상의 착오는 의사표시자가 표시하고자 의도한 것과 다른 표시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매매계약서에 100,000원이라고 표시할 것을 착오로 10,000원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㉗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의사표시 과정에서 의사표시자의 착오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즉 의사표시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의사표시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내용의 착오나 표시상의 착오가 이에 해당하는데, 동기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예외로 한다. 셋째로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의사표시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주식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주식 양도의 제한 유무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의사표시자가 단순한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취소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그의 의사표시에 있어 위험을 의식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모험적인 행위를 한 경우, 착오가 없을 때보다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자에게 유익한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착오자, 즉 착오를 일으킨 의사표시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착오자가 의도한 대로 효력 있게 할 용의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취소권이 배제된다.

### 31. ㉞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후 매수인이 1,0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를 밝힌 경우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매수인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법률상 공장 신설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던 매수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이 신도시 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하여 가격이 급락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①]

의사표시자가 표시하고자 의도한 것과 다른 표시행위를 한 것으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았어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 [음운의 변동]

#####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A+B → A+C)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0)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A+B → A)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A+B → A+'C'+B) 음운 개수가 하나 늘다.(+1)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A+B → C)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 1. 음절 끝소리 규칙 :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받음.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고 연음.

받침	대표음	예시
ㄱ, ㅋ, ㆁ	ㄱ	국[꺠], 밖[꺠], 부엌[부꺠]
ㄴ	ㄴ	소원[소원]
ㄷ, ㅌ, ㅅ, ㅆ, ㅈ, ㅊ, ㅎ	ㄷ	날, 낱, 낫, 낯, 낯, 낯, 낯 → [낯]
ㄹ	ㄹ	말[말], 발[발]
ㅁ	ㅁ	감[감]
ㅂ, ㅃ	ㅂ	입, 앞 → [입]
ㅇ	ㅇ	강[강]

#### 2. 유음화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비음	환경	결과	예시
ㄴ	ㄹ 앞이나 뒤	[ㄹ]	신라 → [실라], 물난리 → [물랄리], 뚫는 → [뚫는 → 뚫른]

#### 3. 비음화

##### ① 비음(동)화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파열음	환경(비음)	결과	예시
ㄱ	ㄴ, ㅁ 앞	[ㅇ]	국물[꺠물], 낯는다[꺠는다→꺠는다], 부엌문[부꺠문→부꺠문]
ㄷ	ㄴ, ㅁ 앞	[ㄴ]	달는[꺠는], 걸모양[꺠모양→꺠모양], 쫓는[꺠는→꺠는]
ㅂ	ㄴ, ㅁ 앞	[ㅁ]	밥물[꺠물], 앞니[꺠니→꺠니], 값만[꺠만→꺠만]

② ‘ㄹ’의 비음화 : ‘ㄹ’이 다른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뀜(①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음	환경	결과	예시
ㄹ	ㄹ 이외의 자음 뒤	[ㄴ]	담력[담녁], 종로[종노], 대통령[대:통녕], 협력[협녁→협녁], 막론[막논→망논]

[참고] 결국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기억하면 좋다.

유음화, 비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4. 구개음화 : 받침 ‘ㄷ, ㅌ(ㄷ)’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동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으로, 어떤 음이 인접해 있는 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다. 모음 ‘ㅣ’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구개음(경구개음)인데, ‘ㅣ’와 거리가 먼 ‘ㄷ, ㅌ’이 ‘ㅣ’와 거리가 가까운 ‘ㅈ, ㅊ’으로 발음되어 ‘ㅣ’와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바뀐 것이므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현상이다.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ㄷ, 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ㅈ, ㅊ]	굳이 → [구지], 밭이 → [바치],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참고 1] 구개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둘 다 바뀌는 것이다.

[참고 2] 구개음화는 ① 통시적 변화 ② 자음 축약과의 비교(달히다[다치다] vs 꽃히다[꼬치다])까지 알아두면 좋다.

5. 된소리되기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된소리되기는 매우 생산적인 음운 변동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조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ㄱ, ㄷ, ㅂ, ㅅ, ㅈ → [ㄲ, ㄸ, ㅃ, ㅆ, ㅉ] / ①, ②, ③

① ㄱ, ㄷ, ㅂ 뒤

예) 국밥 → [국꺾], 꽃병 → [꽃뽕], 값도 → [갑또]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ㄱ, ㄷ, ㅂ’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어간의 끝 자음 ㄴ, ㅁ 뒤

예) (동생)을 안고 → [안꼬], (신발)을 신고 → [신꼬], (의자에) 앉고 → [안꼬]

-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의 ‘ㄴ, ㅁ’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체언의 끝 자음 ‘ㄴ, ㅁ’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 신고(申告)[신고]

- 피동, 사동 접사 ‘-가’의 첫 자음은 이 변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안기다[안기다]: 안 + -가 + -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예) 할 것을 → [할꺼슬], 갈 데가 → [갈떼가], 만날 사람 → [만날싸람]

-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를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ㄹ걸’, ‘-ㄹ밖에’, ‘-ㄹ게’, ‘-ㄹ수록’, ‘-ㄹ세라’, ‘-ㄹ지라도’ 등은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형태로, 발음상으로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④ ㄷ, ㅅ, ㅈ → [ㄸ, ㅆ, ㅉ]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

예) 갈등 → [갈똥], 말살 → [말쌀], 열정 → [열똥]

-----교체

6. 자음군 단순화 :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겹받침)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우리말에서 음절 말 위치에 놓이는 자음은 하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 그러나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될 경우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된다. 예) 앉으면 → [안즈면]

[주의] 쌍자음 ‘ㄱ, ㅍ’은 겹받침이 아니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겹받침	환경	결과	예시
체언의 겹받침 ㄱ, ㅌ, ㅍ, ㄷ, ㄹ	어말 또는 자음 앞	[ㄱ, ㄹ, ㅍ, ㄷ, ㄹ]	넋 → [넉], 여덟 → [여덜], 값 → [갑], 닭 → [대], 삼 → [삼]
어간의 겹받침 ㄴ, ㄴ, ㄹ, ㄹ, ㅂ, ㄹ, ㄹ	자음 앞	[ㄴ, ㄴ, ㄹ, ㄹ, ㅂ, ㅂ, ㅂ]	앉고 → [안꼬], 많네 → [만:네], 핥고 → [할꼬], 앓는 → [알른], 없고 → [업:꼬], 굶다 → [굸:따], 읊다 → [읍:따] 단, 'ㄴ, ㄹ'의 'ㅎ'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되기도 한다. 예) 많다 → [만타]

[참고] 특이한 겹받침 발음(알아두자)

- 어간의 겹받침 ㄹ → [ㄹ] / ㄱ 앞 예) 읽고 → [일꼬], 맑게 → [말께]  
                  ㄹ → [ㄱ] / ㄱ 이외의 자음 앞 예) 읽다 → [익따], 맑다 → [막따]
- 어간의 겹받침 ㅌ → [ㄹ] / 자음 앞 예) 넓고 → [널꼬], 짧게 → [잘께]  
                  ㅌ → [ㅂ] (뵈-/ 자음 앞, 넓죽하다, 넓둥글다)  
                  예) 뵈고 → [뵈꼬], 넓죽하다 → [넵쭈카다], 넓둥글다 → [넵똥글다]  
⇒ ‘ㅌ’은 주로 ‘ㄹ’이 남으나, 자음 앞에 나타난 ‘뵈’과,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ㅌ’은 ‘ㅂ’이 남는다.

-----탈락

7.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

ㅎ + ㄱ, ㄷ, ㅂ, ㅅ → [ㅋ, ㅌ, ㅍ, ㅊ] 예) 놓고 → [노코], 앉던 → [안턴], 싫지 → [실치]
ㄱ, ㄷ, ㅂ, ㅅ + ㅎ → [ㅋ, ㅌ, ㅍ, ㅊ] 예) 낙하산 → [나카산], 마형 → [마텟], 값 흥경 → [가퐁정]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자음이 거센소리되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축약

8. ‘ㄴ’ 첨가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두 단어나 구를 휴지 없이 발음할 때에도 ‘ㄴ’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ㄴ’ 첨가 현상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석유 → [서규], 송별연 → [송:벼련]

∅ → [ㄴ] / 받침 자음 + ㅣ 또는 반모음 ‘ㅣ’ 예) 맨 + 입 → [맨닙], 색 + 연필 → [생년필]
--

[주의] ‘ㄴ’ 첨가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특히 ‘ㄴ’ 첨가 후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의 경우에는 ‘ㄴ’의 형태가 발음에 보이지 않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발야구[발라구]의 경우 ‘ㄴ’ 첨가 후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지만 발음에는 ‘ㄴ’ 밖에 보이지 않는다. ‘ㄴ’ 첨가 후 유음화되는 현상은 꼭 기억하자.



[선택지 해설]

13. ㉞

①	잃다	잃다 → [일타] 거센소리되기
②	서울역	서울역 → 서울녁 → [서울력] 'ㄴ' 첨가 유음화
③	읽고	읽고 → 읽꼬 → [일꼬]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을다	을다 → 을다 → 읊다 → [읍따] 자음군 단순화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④	색연필	색연필 → 색년필 → [생년필] 'ㄴ' 첨가 비음화
	콩엿	콩엿 → 콩녇 → [공녇] 'ㄴ' 첨가 음절 끝소리 규칙
⑤	직행열차	직행열차 → 지갱열차 → [지갱녇차] 거센소리되기 'ㄴ' 첨가
	급행요금	급행요금 → 그팽요금 → [그팽뇨금] 거센소리되기 'ㄴ' 첨가

**정답해설** 답은 ㉞야. 먼저 '직행열차'에서는 우선 앞 음절 'ㄱ'과 뒤 음절 'ㅎ'이 만나 축약되어 'ㅋ'이 되는 거센소리가 일어나 '지갱열차'가 돼. 그 후, 첨가인 'ㄴ' 첨가가 일어나서 [지갱녇차]가 돼. 그리고 음운의 개수를 살펴보면 원래 'ㄱ, ㄷ, ㄹ, ㅎ, ㄴ, ㅁ, ㄴ, ㄷ, ㅅ, ㅈ, ㅊ, ㅌ' 10개였던 것이 'ㄱ, ㄷ, ㅋ, ㅎ, ㄴ, ㅁ, ㄴ, ㅈ, ㅊ, ㅌ' 그대로 10개로 유지 돼. 즉, '직행열차[지갱녇차]'에서는 축약과 첨가가 일어나고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어. 다음으로 '급행요금'에서는 우선 앞 음절 'ㄴ'과 뒤 음절 'ㅎ'이 만나 축약되어 'ㅍ'이 되는 거센소리가 일어나 '그팽요금'이 돼. 그 후, 첨가인 ㄴ첨가가 일어나서 [그팽뇨금]이 돼. 그리고 음운의 개수를 살펴보면 원래 'ㄱ, ㄷ, ㄹ, ㅎ, ㄴ, ㅁ, ㄴ, ㅈ, ㅊ, ㅌ' 10개였던 것이 'ㄱ, ㄷ, ㅍ, ㅎ, ㄴ, ㅁ, ㄴ, ㅈ, ㅊ, ㅌ' 그대로 10개로 유지 돼. 즉, '급행요금[그팽뇨금]'에서는 축약과 첨가가 일어나고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잃다'에서는 앞 음절 'ㅎ'과 뒤 음절 'ㄷ'이 만나 축약되어 'ㅌ'가 되는 거센소리가 일어나 [일타]가 돼. 그리고 음운의 개수는 본래 'ㄷ, ㄹ, ㅎ, ㄷ, ㅌ' 5개였던 것이 'ㄷ, ㄹ, ㅌ, ㅌ' 4개로 하나 줄어들어. 즉, '잃다[일타]'는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어.

②를 살펴보자. '서울역'에서는 먼저 첨가인 'ㄴ' 첨가가 일어나서 '서울녁'이 된 후, 앞 음절 'ㄹ'과 뒤 음절 'ㄴ'이 만나 뒤 음절 'ㄴ'이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나서 [서울력]이 돼. 그리고 음운의 개수는 본래 'ㄱ, ㄷ, ㄹ, ㄷ, ㄹ, ㄱ' 6개에서 'ㄱ, ㄷ, ㄹ, ㄹ, ㄹ, ㄱ' 7개로 하나 늘었어. 즉, '서울역[서울력]'에서는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어.

③을 살펴보자. 먼저, '읽고'에서는 앞 음절 종성의 안울림소리 'ㄱ'과 뒤 음절 초성의 안울림소리 'ㄱ'이 만나 'ㄱ'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읽꼬'가 돼. 그 후 탈락인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서 [일꼬]가 돼. 그리고 음운의 개수를 살펴보면 원래 'ㄷ, ㄹ, ㄱ, ㄱ, ㄱ' 5개였던 것이 'ㄷ, ㄹ, ㄱ, ㄱ' 4개로 하나가 줄었어. 즉, '읽고[일꼬]'에서는 교체와 탈락이 일어나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 다음으로 '을다'에서는 먼저 탈락인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서 '을다'가 된 후,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읍다'가 돼. 그리고 앞 음절 종성의 안울림소리 'ㄴ'과 뒤 음절 초성의 안울림소리 'ㄷ'이 만나 'ㄷ'이 'ㄷ'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읍따]가 돼. 음운의 개수는 본래 'ㄷ, ㄹ, ㅍ, ㄷ, ㅌ' 5개에서 'ㄷ, ㄹ, ㅍ, ㅌ' 4개로 하나 줄었어. 즉, '을다[읍따]'에서는 탈락 한 번과 교체 두 번이 일어나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어.

④를 살펴보자. 먼저 '색연필'에서는 우선 첨가인 ㄴ첨가가 일어나서 '색년필'이 된 후, 앞 음절 종성 'ㄱ'과 뒤 음절 초성 'ㄴ'이 만나 'ㄱ'이 비음인 'ㅇ'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생년필]이 돼. 음운의 개수는 본래 'ㄱ, ㅎ, ㄱ, ㄷ, ㄴ, ㅍ, ㄷ, ㄹ' 8개에서 'ㄱ, ㅎ, ㅇ, ㄷ, ㄷ, ㄹ, ㅍ, ㄷ, ㄹ' 9개로 하나 늘었어. 다음으로 '콩엿'에서는 우선 첨가인 ㄴ첨가가 일어나서 '콩녇'이 된 후,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공녇]이 돼. 음운의 개수는 본래 'ㄱ, ㄷ, ㄹ, ㄷ, ㅌ' 5개에서 'ㄱ, ㄷ, ㄹ, ㄷ, ㄷ' 6개로 하나가 늘었어.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중세의 격 조사]

(1) 주격 조사

형태	환경	예시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사름 + <u>이</u>
ㅣ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터 + <u>ㅣ</u>
∅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불휘 + <u>∅</u>

(2) 관형격 조사

형태	환경	예시
ㅅ	높임 유정 명사, 무정 명사 뒤	부터 + <u>ㅅ</u> , 나라 + <u>ㅅ</u>
익	평칭의 유정 명사 뒤	물 + <u>익</u>
의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崔九(최구) + <u>의</u>

(3) 부사격 조사

형태	환경	예시
애/에/예	선행 체언의 모음이 양성 / 음성 / ㅣ	바를 + <u>애</u> , 도솔천 + <u>예</u> 서리 + <u>예</u> / 빅 + <u>예</u>
익/의	특정 체언에만 연결(특이치격어)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밤 + <u>익</u> , 곁 + <u>의</u>
와/과	말음이 ‘ㄹ’, ‘모음’이면 ‘와’ 말음이 자음이면 ‘과’	달 + <u>와</u> , 짜ㅎ + <u>과</u>

2. 중세의 객체 높임법

현대 국어	중세 국어	예시
선어말 어미 없이 특수 어휘로 실현	-습/습- (어간의 끝소리 ㄱ, ㅂ, ㅅ, ㅎ 뒤)	막 <u>습</u> 거늘, 돕 <u>스</u> 븐니
	-줍/줍- (어간의 끝소리 ㄷ, ㅌ, ㅈ, ㅊ 뒤)	듣 <u>줍</u> 게, 얻 <u>즈</u> 븐
	-습/습- (어간의 끝소리 유성음 뒤)	보 <u>습</u> 게, ㄱ <u>초</u> 스 <u>븐</u>

- 후행 어미가 자음이면 ‘-습/줍/습-’, 후행 어미가 모음이면 ‘-습/줍/습-’

[선택지 해설]

14. ②

**정답해설** 답은 ②야. ③의 ‘동격에’는 분석하면 ‘동격 + 에’이며 현대어로 ‘중격과’야. 이를 통해 중세국어의 부사격조사 ‘에’는 현대국어에서 비교부사격조사 ‘과’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즉, ‘동격에’에서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에 해당해. 다음으로 ④의 ‘精舎애’는 분석하면 ‘精舎(정사) + 애’이며 현대어로 ‘정사에’야. 이를 통해 중세국어의 부사격조사 ‘애’는 현대국어에서 처소부사격조사 ‘에’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즉, ‘精舎애’에서 ‘애’는 처소 부사격 조사에 해당해. 정리하면 ‘동격에’에서 ‘에’는 비교 부사격조사, ‘精舎애’에서 ‘애’는 처소 부사격조사로 서로 다른 부사격조사야. 그러므로, ‘에’와 ‘애’가 모두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이며, 선행하는 체언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었다는 것은 틀렸어.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③의 ‘나라’는 분석하면 ‘나라(체언) + ㅅ(관형격조사)’야. 이때, 체언 ‘나라’는 살아있지 않은 무정물이며, 이에 관형격조사 ‘ㅅ’이 사용되었어. 다음으로 ⑥의 ‘거부비’는 분석하면 ‘거북(체언) + 의(관형격조사)’야. 이때, 체언 ‘거북’은 살아있는 유정물이며, 이에 관형격조사 ‘의’가 사용되었어. 즉 ‘나라’와 ‘거부비’의 예시를 통해 무정물과 유정물을 구분하여 관형격 조사를 다르게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③을 살펴보자. ④의 ‘내’는 현대국어에서 ‘내가’로, 분석하면 ‘나(체언) + ㅣ(주격조사)’야. 이때, 주격조사 ‘ㅣ’라는 형태는 앞의 체언이 ㅣ모음이 아닌 모음 ‘ㅏ’로 끝났기 때문이야. 현대국어에서 주격조사의 형태는 ‘이/가’지. 즉, ‘ㅣ’라는 형태의 주격조사는 없어. 그러므로 ‘내’를 통해서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형태의 주격조사를 확인할 수 있어. 참고로, 중세국어에서는 앞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주격조사 ‘이’가, 앞 체언이 ㅣ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나면 주격조사 ‘ㅣ’가, 앞 체언이 ㅣ모음으로 끝나면 주격조사 ‘∅(영형태)’가 실현돼.

④를 살펴보자. ⑤의 ‘안젯더시니’는 분석하면 ‘안- + -아 잇- + -더- + -시- + -니’로 현대국어로 ‘안아 있으시더니’야. 여기서 우리가 봐야하는 부분은 중세국어의 ‘더시’야. 중세국어에서는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보다 앞에 와. 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있으시더니’에서 보듯이 ‘시더’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보다 앞에 오고 있어. 즉, 선어말어미의 결합 순서가 중세국어에서는 ‘회상-주체높임’이었고, 현대국어에서는 ‘주체높임-회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⑥를 살펴보자. ⑦의 ‘내 포 말쭙 듣줍고샤’는 ‘내가 왕의 말씀을 듣고서야’라는 의미이며, ‘듣줍고샤’는 분석하면 ‘듣-(어간) + -줍-(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 -고샤(어말어미)’가 돼. 여기서 우리는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줍-’을 확인할 수 있지. 이때,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중 ‘-줍-’이 사용된 이유는 앞 말이 ‘ㄷ’으로 끝났기 때문이야. 앞 말이 ‘ㄷ, ㅌ, ㅈ, ㅊ’로 끝나면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로 ‘-줍-’이 오거든. 또한, 객체 높임이란 문장에서 객체인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것으로,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인 ‘포 말쭙(왕의 말씀)’을 높이고 있어.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안은 문장]

안은 문장 : 안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안긴 문장 :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으로, ‘절’이라고도 한다.

(1) 명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의 역할)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으)ㄴ’	나는 승모가 모범생임을 안다. 우리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음이 확인되었다.
② 명사형 어미 ‘-기’	우리는 승모가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가 너무 어렵다.

(2) 부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표지	예
① 부사형 어미 ‘-게’	엄마가 아이를 입을 <u>마르게</u> 칭찬했다.
② 부사형 어미 ‘-도록’	태현이는 다리가 <u>붓도록</u> 걸었다.
③ 부사형 어미 ‘-아서/어서’	나는 <u>열지가 잡아서</u> 하루 더 머물렀다.
④ 부사형 어미 ‘-듯이’	나그네가 <u>달이 구름에 가듯이</u> 간다.
⑤ 부사형 어미 ‘-ㄴ수록’	<u>해가 갈수록</u>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⑥ 부사 파생 접미사 ‘-이’	그 사람이 <u>말도 없이</u> 갔다.

(3) 관형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

표지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은</u>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는</u>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을</u>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던</u> 사람이 없다.

[참고]

관계 관형절	개념 : 관형절의 문장 성분 중 주절에 있는 동일 요소가 생략되는 관형절
	<p>예) 학교에 가는 철수를 보았다.</p> <p>→ 관형절 ‘(철수가) 학교에 가는’에서 주어 생략 철수가 쓴 글을 읽었다.</p> <p>→ 관형절 ‘철수가 (글을) 쓴’에서 목적어 생략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다.</p> <p>→ 관형절 ‘파도의 자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에서 부사어 생략</p>
동격 관형절	개념 : 관형절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관형절 / 생략되는 문장 성분이 없음
	<p>예) 나는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다.</p> <p>→ 관형절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과 ‘사실’이 동일한 의미</p>

(4) 서술절을 안은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절 표지가 없음.)

예) 코끼리가 코가 길다. 서울은 인구가 많다.

(5)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화자의 생각, 느낌,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옮긴 문장

표지	예
① 직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라고’, ‘하고’	나는 “ <u>날씨가 너무 더워!</u> ”라고 소리쳤다. 폭풍으로 나무가 “ <u>쿵!</u> ”하고 쓰러졌다.
② 간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고’	선생님이 나에게 <u>저 가방에는 무엇이 있냐고</u> 물었다. 철수가 영희에게 <u>숙제를 보여달라고</u> 했다.

2.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

(1)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 대등적 연결어미로 형성

· 나열 (-고, -(으)며)

예) 꽃이 피고 새가 운다. 철수는 서울로 가고 영희는 부산으로 간다. 떡은 쌀가루로 만들며 빵은 밀가루로 만든다.

· 대조 (-지만, -(으)나) 예) 절약은 부자를 만드나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

· 선택 (-든지) 예)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정하자.

(2)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종속적 연결어미로 형성

· 조건 (-(-으)면, -거든, -어야) 예)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원인 (-(-으)니, -(으)니까, -어서) 예) 비가 와서 길이 질다.

· 의도 (-(-으)러, -(으)려고, -고자) 예) 소풍을 가려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 양보 (-더라도, -(으)ㄹ지라도) 예) 설령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출발할 것이다.

[참고 자료][문장 출제 요소 정리]

	절 표시(전성 어미)	출제 요소
명사절	-음, -기	역할 : 주어, 목적어, 부사어(격 조사로 판단), 보어(보기 힘듦) 관형어(순간적인 착각이나 함정 주의) <보기> → <판단> → <선택지> 순서대로 예시) <보기> : (승모가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졌다. → (판단) 명사절이 주어 역할 → (선택지 출제) ① 주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나는 (너희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 → ②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승모는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 → ③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그는 (비가 오기) 전에 떠났다. →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기 전) → ④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함정 주의) [보통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선택지를 보면 관형절을 떠올리기 마련, 명사절도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만약 번거롭다면 ‘-기 전’을 외워두고 명사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기억해두자.]
관형절	-은, -는, -던, -ㄹ	1)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p>3) 생략 여부 : 안긴 문장의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긴 문장의 한 성분이 생략되는 관형절 : 관계 관형절(중요)</li> <li>- 안긴 문장의 한 성분이 생략되지 않는 관형절 : 동격 관형절(잊지 말기)</li> </ul> <p>    &lt;보기&gt; → &lt;판단&gt; → &lt;선택지&gt; 순서대로</p> <p>예시) &lt;보기&gt; : (예쁜) 꽃이 피었다. → &lt;판단&gt; ‘-ㄴ’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꽃을 집어넣는다. / 꽃이 예쁘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것. → &lt;선택지 출제&gt; ①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그는 (좁은) 길을 혼자 걸었다. → ‘-은’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길을 집어넣는다. / 길이 좁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것. → ②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p> <p>여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다. → ‘-는’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음식’을 집어넣는다. /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목적어가 생략된 것. → ③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p> <p>(승모가 밥을 먹은) 식당은 학원 앞에 있다. → ‘-은’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식당을 집어넣는다. / 승모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부사어가 생략된 것. → ④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p> <p>우리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동격 관형절 / 생략X)</p>
부사절	<p>-게, -도록, -듯이, -니까 -이(부사 파생 접미사)(없이, 같이, 달리)</p>	<p>1)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이(부사 파생 접미사) <b>없이, 같이, 달리처럼 ‘-이’가 결합되어 부사가 된 단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b> (사람들이 앉게) 어서 일어나자 → 부사절 승모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부사절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 원래 ‘소리가 없다’ 즉 절이다. ‘소리도 없이’가 ‘내린다’라는 용언을 꾸민다. 즉 부사절이다. <b>‘없이’는 부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b></p> <p>1)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앞절이 뒷절 사이로 들어가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로 보기도 한다. - 비가 와서 차가 막힌다.(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차가 (비가 와서) 막힌다.(‘비가 오다’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p> <p>2) 인용절 역시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승모는 (날씨가 참으로 덥다고) 되뇌었다.(인용절 / 부사어의 역할)</p> <p>이처럼 부사절은 범위가 넓다. 따라서 절이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라는 판단만 해주면 된다.</p>
서술절	<p>X(문장 형태에 익숙해지기)</p>	<p>1)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안긴 문장에 부사어가 있느냐 3) 보어가 있는 홀문장과 구분할 수 있느냐</p> <p><b>이 집은 (베란다가 넓다.)</b> 이 집은(문장 전체 주어) (베란다가(주어) 넓다.(서술어))(문장 전체 서술어) → 서술절 /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p>

		<p>친구는 (얼굴이 많이 변했다). 친구는(문장 전체 주어) (얼굴이(주어) 많이 변했다.(서술어))(문장 전체 서술어) → 서술절 /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 / 안긴 문장 안에 부사어가 있느냐(많이)</p> <p>승모는 돼지가 아니다.(되다, 아니다 앞 이/가는 보어 / 홀문장) 이번 실패는 어느 한 사람의 탓이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 이/가는 보어 / 홀문장)</p>
인용절	라고(직접 인용), 고(간접 인용)	<p>직접 ⇔ 간접 바꿔보기 승모는 밥을 잘 먹었다고 말했다.(간접 인용 / 부사어의 역할)</p>

[선택지 해설]

15. ④

㉠	친구들은 [내가 [신나는] 노래를 불러 주기]를 바랐다. 관형절(주어 생략)      명사절(목적어 역할)
㉡	선생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당부하셨다. 부사절      명사절(목적어 역할)
㉢	[산을 8시간 동안 올랐던] 그는 [다리가 무척 아팠다.] 관형절(주어 생략)      서술절
㉣	엄마는 [세월의 흔적도 없이] [얼굴이 아름다우시다.] 부사절      서술절

**정답해설** 답은 ④야. ㉠, ㉡, ㉢, ㉣ 문장을 모두 분석해보자. 먼저, ㉠의 ‘친구들은 내가 신나는 노래를 불러 주기를 바랐다.’에는 두 개의 안긴문장이 있어. 첫째, ‘내가 신나는 노래를 불러 주기’라는 명사절로 안긴문장이야. 이는 본래 ‘내가 신나는 노래를 불러 준다.’라는 문장으로, 어미가 명사형 전성 어미 ‘-기’로 바뀌어 안겼으며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둘째, ‘신나는’이야. 이는 명사절 안에서 관형절로 안긴문장이야. 이때, ‘신나는’이라는 관형절로 안긴문장의 안은 문장은 앞서 본 명사절이 되겠지. 본래 ‘노래가 신나다’라는 문장인데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주어 ‘노래가’가 생략되고,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으로 바뀐 후 안겼어. 그리고 안은문장의 체언인 ‘노래’를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의 ‘선생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당부하셨다.’에는 두개의 안긴문장이 있어. 첫째,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기’라는 명사절로 안긴문장이야. 이는 본래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다.’라는 문장으로, 어미가 명사형 전성 어미 ‘-기’로 바뀌어 안겼으며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둘째, ‘건강하게’야. 이는 명사절 안에서 부사절로 안긴문장이야. 이때, ‘건강하게’라는 부사절로 안긴문장의 안은문장은 앞서 본 명사절이 되겠지. 본래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주어 ‘우리가’가 생략되고 부사형 전성 어미 ‘-게’를 사용한 후 안겼어. 그리고 동사이자 안은문장의 서술어인 ‘지내기’를 꾸미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의 ‘산을 8시간 동안 올랐던 그는 다리가 무척 아팠다.’에는 두개의 안긴문장이 있어. 첫째, ‘산을 8시간 동안 올랐던’이라는 관형절로 안긴문장이야. 이는 본래 ‘그가 산을 8시간 동안 올랐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주어 ‘그가’를 생략하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 ‘-던’을 사용하여 안겼어. 그리고 안은문장의 체언인 ‘그’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둘째, ‘다리가 무척 아팠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어. ‘그는 다리가 무척 아팠다.’에서 우리는 ‘그는’과 ‘다리가’라는 두 개의 주어와 ‘아팠다’라는 하나의 서술어를 찾을 수 있어. 이때, ‘아팠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다리가’야. ‘다리가 아픈 상태’라는 거지. 그렇다면 ‘그의 상태는 어때? 맞아. ‘다리가 아픈 상태’야. 즉, ‘그’의 서술어가 ‘다리가 아팠다.’가 되는 것으로, ‘다리가 아팠다’라는 절이 하나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의 ‘엄마는 세월의 흔적도 없이 얼굴이 아름다우시다.’에는 두개의 안은문장이 있어. 첫째, ‘세월의 흔적도 없이’라는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야. 이는 본래 ‘세월의 흔적도 없다’라는 문장에서 어미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로 바뀌어 안겼어. 둘째, ‘얼굴이 아름다우시다’라는 서술절로 안긴문장이야. ‘엄마는 얼굴이 아름다우시다.’에서 우리는 ‘엄마는’과 ‘얼굴이’라는 두 개의 주어와 ‘아름다우시다.’라

는 하나의 서술어를 찾을 수 있어. 이때, '아름다우시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얼굴'이야. 얼굴이 아름다운 상태잖아. 그럼 '엄마의 상태는 어때? '얼굴이 아름다운 상태'야. 즉, '엄마'의 서술어가 '얼굴이 아름다우시다'가 되는 것으로, '얼굴이 아름다우시다'라는 절이 하나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위의 내용을 토대로 선지 ㉔번을 보면, ㉔에는 '신나는'이라는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 있어. 이는 본래 '노래가 신나다'라는 문장인데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주어 '노래가'가 생략되고,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으로 바뀐 후 안겼어. 그리고 안은문장의 체언인 '노래'를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즉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어. 다음으로 ㉕에는 '건강하게'라는 부사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본래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주어 '우리가'가 생략되고 부사형 전성 어미 '-게'를 사용한 후 안겼어. 그리고 동사이자 안은문장의 서술어인 '지내기'를 꾸미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즉, ㉕에도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으며,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은 없어.

####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먼저, ㉔에는 '내가 신나는 노래를 불러 주기'라는 명사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이는 본래 '내가 신나는 노래를 불러 주다.'라는 문장으로, 어미가 명사형 전성 어미 '-기'로 바뀌어 안겼으며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다음으로, ㉕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기'라는 명사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이는 본래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다.'라는 문장으로, 어미가 명사형 전성 어미 '-기'로 바뀌어 안겼으며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②를 살펴보자. 먼저, ㉔에는 '다리가 무척 아팠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어. '그는 다리가 무척 아팠다.'에서 우리는 '그는'과 '다리가'라는 두 개의 주어와 '아팠다'라는 하나의 서술어를 찾을 수 있어. 이때, '아팠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다리가'야. '다리가 아픈 상태'라는 거지. 그렇다면 '그'의 상태는 어때? 맞아. '다리가 아픈 상태'야. 즉, '그'의 서술어가 '다리가 아팠다.'가 되는 것으로, '다리가 아팠다'라는 절이 하나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다음으로, ㉕에는 '얼굴이 아름다우시다'라는 서술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엄마는 얼굴이 아름다우시다.'에서 우리는 '엄마는'과 '얼굴이'라는 두 개의 주어와 '아름다우시다.'라는 하나의 서술어를 찾을 수 있어. 이때, '아름다우시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얼굴'이야. 얼굴이 아름다운 상태잖아. 그럼 '엄마의 상태는 어때? '얼굴이 아름다운 상태'야. 즉, '엄마'의 서술어가 '얼굴이 아름다우시다'가 되는 것으로, '얼굴이 아름다우시다'라는 절이 하나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③을 살펴보자. 먼저 ㉔에는 '산을 8시간 동안 올랐던'이라는 관형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그리고 여기 안에는 '8시간 동안'이라는 구가 있으며 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즉, '8시간 동안'은 부사어구에 해당해. 다음으로 ㉕에는 '세월의 흔적도 없이'라는 부사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세월의'이라는 '체언 + 관형격조사'로 이루어진 관형어가 '흔적'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어.

⑥를 살펴보자. ㉔에는 '건강하게'라는 부사절로 안긴문장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㉕에는 '세월의 흔적도 없이'라는 부사절로 안긴문장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어. 즉, ㉔과 ㉕에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어. 다음으로 ㉔에는 '신나는'이라는 관형절로 안긴문장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㉕에는 '산을 8시간 동안 올랐던'이라는 관형절로 안긴문장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어. 즉, ㉔과 ㉕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어.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고전산문 [25~28번 지문] [조위한, ‘최척전’]

“너는 모름지기 바를 한 척 사고 양식을 준비하라. 이곳에서 조선까지는 수로 불과 2, 3천 리밖에 되지 않는다. ...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라”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239p) #수능특강 사용설명서(237p)

[작품 ‘한 눈에 보기’]

[작품 줄거리]	
<p>남원에 사는 쇠락한 양반집 아들인 최척은 서울에서 난리를 피해 온 양반가 옥영과 약혼을 하지만 갑자기 징발되고, 옥영의 부모는 이웃의 부자(富者)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이에 옥영은 자살을 기도하고, 이 사실을 안 최척은 진중에서 달려온다. 두 사람은 드디어 혼인을 하며 장남 몽석이 출생한다. 그러나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자 옥영은 왜병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일본에서 상선을 타고 다니며 왜인의 장삿일을 돕게 된다. 최척은 명장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다. <b>[17학년도 6평 기출 몇 년 뒤 최척은 베트남에서 왜국의 상선을 따라 안남에 온 아내 옥영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b> 이들은 중국으로 돌아와 살며 아들 몽선을 낳는다. 그렇게 몽선이 장성하여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전한 진위경의 딸 흥도를 아내로 맞는다. 이듬해 최척은 명나라 병사로 출전하였다가 청군(淸軍)의 포로가 되어 포로수용소에서 만아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 <b>[EBS 수록부분] 부자는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향하던 중 몽선의 장인 진위경을 만난다.</b> 옥영 역시 몽선·흥도와 더불어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와 일가가 다시 만나게 된다.</p>	
<b>주제</b>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작품 구조]	
<p>▼ 이산과 재회의 파노라마 <small>(사용설명서 238p)</small></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                 최척, 옥영, 몽석 등 남은 가족 &lt;남원&gt;             </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10px;"> <span style="font-size: 20px; margin-right: 5px;">→</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                     최척 &lt;중국&gt;                      옥영 &lt;일본&gt;                 </div> <span style="font-size: 20px; margin: 0 5px;">→</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                     최척, 옥영 &lt;베트남&gt;                 </div> <span style="font-size: 20px; margin: 0 5px;">→</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                     최척, 옥영, 몽선, 흥도 &lt;중국&gt;                 </div> <span style="font-size: 20px; margin: 0 5px;">→</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                     최척, 몽석 &lt;만주&gt;                      옥영, 몽선, 흥도 &lt;중국&gt;                 </div> <span style="font-size: 20px; margin: 0 5px;">→</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                     최척, 몽석, 진위경, 옥영, 몽선, 흥도, 남은 가족 &lt;남원&gt;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span style="font-size: 20px; margin-right: 5px;">→</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 text-align: center;">                     몽석 등 남은 가족 &lt;남원&gt;                 </div> <span style="font-size: 20px; margin: 0 5px;">→</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 text-align: center;">                     남은 가족 &lt;남원&gt;  <small>(몽석은 만주로)</small> </div> <span style="font-size: 20px; margin: 0 5px;">→</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                     최척, 몽석, 진위경, 옥영, 몽선, 흥도, 남은 가족 &lt;남원&gt;                 </div> </div> </div> </div>	
<p>⇒ 최척과 옥영의 가족은 동아시아 곳곳을 떠돌며 이별과 재회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가족 모두가 재회하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다. 각각 중국과 일본에 머물던 최척과 옥영이 베트남에서 만나고, 중국과 남원에 머물던 최척과 몽석은 만주에서 만난다. 수십 년간 이별했던 진위경과 흥도 부녀도 머나먼 타국 땅인 조선의 남원에서 재회한다. 가히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이산과 재회의 파노라마라 할 수 있다.</p>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조위한의 「최척전」은 전란으로 인해 헤어짐과 기적적인 만남이 되풀이된다는 뜻에서 「기우록(奇遇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작품은 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일본, 중국 등으로 흩어진 최척 가족의 삶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이산(離散)의 고통을 그리고 있다. 한편 작가는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가족과의 재회를 위해 분투하는 여성 인물을 등장시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tip] 빈번한 전란, 시간 순으로 살펴보기

- ① 임진왜란 : 옥영과 모녀의 남원으로의 피난을 초래하여 옥영이 최척을 만남과 약혼을 함. 그러나 곧 이 전쟁은 최척을 의병으로 징발되게 했음.
- ② 정유재란 : 임진왜란으로 징병된 최척이 돌아오자마자 정유재란으로 다시 징발이 됨. 또한 옥영 등이 머무르던 남원이 함락되며 큰 불행을 불러일으킴.
- ③ 심하전투 : 명과 후금이 맞붙었던 전투로 장남 몽선은 조선군으로 최척은 명의 군사로 출전하게 됐으나 둘 모두 후금의 포로로 잡히게 됨.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편’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최척과 옥영은 우여곡절 끝에 중국 항주에 터를 잡고 살게 된다. 이후 최척은 창주 전투에 참전하여 오랑캐의 포로가 되지만 조선으로 탈출한다. 이 과정에서 죽을병에 걸렸던 최척은 진위경의 도움으로 무사히 조선으로 귀환하게 된다.

최척이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괴이하도다! 괴이하도다! 내가 항주에서 당신의 집과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당신 처는 신해년 9월에 병으로 죽고 딸 홍도만 혼자 남게 되었는데, 홍도는 이모부인 오봉림의 집에서 길러져 내가 둘째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여기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니,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진위경이 이 말을 듣더니 그의 가족을 본 것처럼 기뻐했다.

(중략)

당시 항주에 있던 옥영은 창주의 관군이 함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척도 진중에서 반드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낮으로 통곡하다가, 마침내 자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 장륙금불이 나타나 말했다.

“삼가 죽지 않도록 해라. 뒤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으리라.”

옥영이 잠에서 깨어나 아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말했다.

“내가 일본에 끌려갔을 때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남원 만복사의 장륙금불이 꿈에 나타나 ‘삼가 죽지 않도록 해라. 뒤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으리라.’고 말했다. 그러고서 4년 뒤에 안남\* 바닷가에서 네 아버지를 만났단다. 이제 내가 또 죽으려고 하는데 역시 이런 꿈을 꿨구나. 너희 형제를 낳아 기른 것이 모두 이 부처님께서 암암리에 도우신 것이니, 네 아버지가 사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 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나의 죽음이 얼마나 한스럽겠느냐?”

몽선이 말했다.

“얼마 전에 들으니, 오랑캐 추장이 중국 병사들은 다 죽었으나 조선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면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본래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살아 계실 것입니다.”

옥영이 마음이 바뀌어 말했다.

“오랑캐 추장의 소굴이 조선의 국경에서 열흘 정도 걸어갈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네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그 형세로 보아 아버님을 찾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내가 본국으로 찾아가야겠다. 만약 네 아버지가 전사하셨으면 내가 몸소 창주로 가서 시신을 찾고 다투어 고향으로 돌아가 선산에 장사를 지내 외로운 혼백이나마 편케 해야겠다. 월나라 새는 남쪽을 생각하고 오랑캐 말은 북쪽에 기댄단다. 금수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어떻겠느냐? 지금까지 나는 이역땅을 떠돌아다녔으며,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가 없구나. 늙으신 시아버님과 홀어머니를 순식간에 이별하고 품속의 어린 아들마저 갑자기 잃어버린 채, 아직까지 그들의 생사도 모르고 있다. 근래 일본 상인들에게 들으니, 포로가 된 조선 사람들을 연이어 풀어 주고 있다는구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혹 이역땅에서 죽었다면 이제 누가 다시 선인들의 묘소를 돌보겠느냐? 내외 친척들이 난중에 다 죽었다면 필경 돌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만약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얼마나 다행이겠느냐? 너는 모름지기 배를 한 척 사고 양식을 준비해라. 이곳에서 조선까지는 수로로 불과 2, 3천 리밖에 되지 않는다. 하늘이 도와 혹 순풍을 만나게 된다면 채 열흘도 못 되어 우리나라에 당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느니라.”

#### **㉮** 옥영, 능동적 여인상

옥영은 최척과 연이 맺어질 적부터 상당히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척에게 마음이 담긴 시경의 글로 쪽지를 건네며 관심을 직접 표현하기도 하고 이웃 부자인 양생으로 시집보내려는 어머니의 뜻을 거부하고 가난한 최척에게 시집가려 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또한 멀리 떨어진 지아비를 찾으러 직접 배를 운항하려는 모습에선 전쟁의 역경마저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몽선이 울면서 말했다.

“어머님께서서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약 순조롭게 건널 수만 있다면 이는 진실로 천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드넓은 푸른 바다를 작은 배로 항해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 파도, 상어, 악어가 어떤 재앙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가 없고, 해적선이 도처에서 사납게 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물속에 빠져 죽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아버님께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비록 어리석으나 이런 큰일을 당해서는 감히 거역하는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도가 옆에 있다가 문득 남편에게 말했다.

“낭군이시여! 낭군이시여! 막지 마십시오! 막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계책이 이미 정해졌으니 외환을 따져서 무엇 하겠습니까? 어머님께서 단단히 마음을 정하셨는데, 어찌 물과 불이 두렵겠습니까?”

옥영이 말했다.

“수로(水路)는 험난하긴 하지만 내가 이미 경험을 갖추고 있다. 옛날 일본에 있을 때 배를 집으로 삼아 봄에는 북건성·광동성에서 장사를 하고, 가을에는 유구에서 물건을 팔았다. 그래서 수시로 출몰하는 거대하고 무서운 파도에도 익숙하고, 별이나 조수의 흐름을 살펴서 점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 험난한 파도도 내가 맡을 것이요, 배의 안전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설사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어찌 벗어날 방도가 없겠느냐?”

- 조위한, 「최척전」-

\* 안남: 현재의 베트남.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b>해제</b>	<p>이 작품은 조위한이 지은 전기 소설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전반부는 최척과 옥영의 애정담이, 후반부는 가족의 이별과 재회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남녀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려는 모습에서 전기 소설의 특징이 보이면서도, 서사 전개가 사실적인 편이며 중국에는 가족들이 모두 재회하는 행복한 결말을 보인다는 점에서 종래의 전기 소설과는 차이를 보인다.</p>
<p><b>[포인트] 작품에 나타난 우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작품의 겉표지에 '기우록(기이한 인연으로 만남의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던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척전」에는 우연성에 의거한 사건들이 다수 일어난다. 제시된 부분에서도 최척이 몽석을 만나게 되는 일을 비롯한 가족의 재회는 이 작품의 우연성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우연은 근거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척 가족들의 간절한 의지와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li> </ul>	
<p><b>작품에 나타난 우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이하도다! 리이하도다! ~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여기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li> <li>→ 최척과 진위경은 조선에 와서야 인사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사돈지간이었음.</li> <li>'옥영 일행이 곧 일어나 그 집 문 앞으로 나아가 보니, ~ 세상에 진짜로 벌어진 일이 아닌 듯이 슬픔과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였다.'</li> <li>→ 최척과 옥영을 비롯하여 가족들이 재회함.</li> </ul>

**[한글 불 지문]** "비교하기, <같은 작품 다른 뉘앙스>, 평가원 - '2017학년도 6월 조위환, 「최척전」"'

경자년(庚子年, 1600년) 늦봄, 최척(崔陟)은 주우(朱佑)\*와 함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차(茶)를 팔다가 마침 내 안남\*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 상선(商船) 10여 척도 강 어귀에 정박하여 10여 일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

날씨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어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단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하였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 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열은 안개가 물 위에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히 울고 있었다.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안에서 엽불하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뿔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즉시 행장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니, 애절한 가락과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여 맑게 퍼져 나갔다. 이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해서 머리가 곧추선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언절구(七言絶句)를 읊었다.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 하는데, [王子吹簫月欲底]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碧天如海露凄凄]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최척은 그 시를 듣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를 보고 주우가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려왔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일세. 시를 읊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하지만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어서 온 가족이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비탄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가운데는 두홍(杜洪)\*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소.”

주우가 저지하며 말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주위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그렇시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 동방이 밝아 오자, 즉시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십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옥영(玉英)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 평소애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 흡사하여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던 것이다. 옥영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하게 뛰어나와 최척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모래밭을 뒹굴

었다.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단지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일이 아니이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옥영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으며 말했다.

“산 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되었소?”

옥영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에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는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주우는 돈우(頓于)\*를 만나 백금 세 덩이를 주고 옥영을 사서 데려 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돈우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이제 4년 되었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식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식을 함께하는 등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지금까지 그가 아낙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직접 겪고 보니, 이는 천지신명도 오히려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마 어떻게 그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돈우는 즉시 주머니 속에서 은자(銀子) 10냥을 꺼내어 전별금(錢別金)으로 주면서 말했다.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에 가슴이 저리기만 하오.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다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며, 이 세상에는 없었던 일일 것이요.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것이요. 사우(沙于)\*여! 사우여!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주우, 두홍: 최척과 함께 장사를 하는 중국인들.

\*안남: 베트남.

\*왕자진: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죄를 입어 서인이 되었음.

\*돈우 : 옥영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일본인.

\*사우: 돈우가 옥영에게 붙여 준 이름.

문제 1	최척과 옥영의 재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타국에서 만난 동포의 도움을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② 두 인물이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③ 두 인물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이루어진다. ④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 ⑤ 주변 인물들 중 대다수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일부에게는 의구심을 유발한다.
정답 해설	② 두 주인공의 재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타국(베트남)의 강어귀에서 쓸쓸함을 느낀 최척이 조선의 곡조로 피리소리로 마음을 달랜다. 귀에 익은 피리 소리를 들은 옥영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 자신이 남편과 있을 때 창작했던 시를 조선말로 읊는다. 이 소리는 다시 최척으로 하여금 일본인의 배를 찾게 만들어 들은 극적인 상봉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의 상봉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한 매개체는 조선의 곡조로 연주한 최척의 피리 소리와 옥영이 조선말로 읊은 시이다. 피리의 곡조와 조선말의 시는 모두 두 인물이 과거에 함께 나눈 문화적 경험이며, 문화적 경험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두 인물의 상봉을 가능하게 한 매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p>오답 풀이</p>	<p>① 제시된 장면에서는 최척과 옥영을 제외한 조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최척과 옥영이 주변 인물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나, 그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④ 돈우가 옥영을 남성으로 오해하기는 하였으나, 옥영의 고난은 전란으로 인한 것이지, 돈우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최척과 옥영이 상봉하면서 통곡하자 주변 인물 중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한편 돈우가 자신이 아끼는 옥영과의 이별을 슬퍼하기는 하나 최척과 옥영의 상봉에 관하여 의심을 품는 것은 아니다.</p>
<p>문제 2</p>	<p><b>윗글의 '밤'과 '아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b></p>
<p>문제 선지</p>	<p>① 밤은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고, 아침은 주인공이 현실적 문제와 대결하는 시간이다.                  ② 밤은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고, 아침은 조력자의 등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③ 밤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계획이 구상되고, 아침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그 계획을 실행 할지 논의하는 시간이다.                  ④ 밤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아침은 그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시간이다.                  ⑤ 밤은 주인공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아침은 극적 장면이 펼쳐 지면서 그 긴장이 해소되는 시간이다.</p>
<p>정답 해설</p>	<p>⑤ 최척은 아내가 창작한 시구를 아내와 비슷한 목소리의 인물이 읊는 것을 듣고, 그 인물이 혹시 아내가 아닌지 확인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는다. 깊은 밤에 소란을 일으킬까 염려되어 아침까지 잠도 자지 않고 때를 기다린 다음, 아침이 되어 아내와 상봉한다. 따라서 밤은 최척이 이제껏 헤어졌던 아내와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때이고, 아침은 극적인 상봉을 통해 그 긴장이 해소되는 때이다.</p>
<p>오답 풀이</p>	<p>① 제시된 글에서 밤에 오고가는 피리 소리와 시 읊는 소리는 최척과 옥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해당하며,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인 것은 아니다.                  ② 부부가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고 재회에 이르는 과정을 위기의 조성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③ 밤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음날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아침에 계획 실행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④ 아침에 부부의 이별이라는 문제 상황이 해결된 것이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다.</p>
<p>문제 3</p>	<p><b>&lt;보기&gt;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p>
<p>&lt;보기&gt;</p>	<p>임진왜란(1592~1598년) 등 16세기 말~ 17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쟁들은 각국 백성들의 삶에 심대한 수난을 초래했다. 이러한 역사를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 조위한의 「최척전」이다. 최척에게서 체험의 전말을 듣고 이 작품을 썼다는 후기로 보면 이 작품이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둔 인물들의 이산(離散)과 귀향의 과정을 그린 유랑의 서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개인 간의 인간적 배려 및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의 모습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p>

문제 선지	<p>① '경자년', '4년' 등은 최척과 옥영이 겪어야 했던 전란과 유랑 체험이 역사적 실제성을 지닌 것임을 알려 주는군.</p> <p>② 처절하게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쉬는 것은 시가 옥영 자신의 이산과 유랑 체험을 계기로 지어진 것임을 알려 주는군.</p> <p>③ '조선말', '조선의 곡조' 등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최척 부부의 재회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군.</p> <p>④ 최척 가족의 이산의 사연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눈물 흘린 것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인류애적인 연민을 보여 준 사례이겠군.</p> <p>⑤ 돈우가 백금을 받고 옥영을 파는 대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며 안타까이 보낸 것은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배려를 보여 주는 사례이겠군.</p>
정답 해설	<p>② 최척의 말에 따르면, 밤에 옥영이 읊은 시는 부부가 헤어지기 전 아내가 짓고 읊었던 시이다. 옥영이 옛날에 지은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쉬는 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유랑하는 처지에 대한 탄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아야지, 시가 이산과 유랑 체험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p>
오답 풀이	<p>① 제시된 장면의 시간적 배경은 '경자년(1600년)'이다. 돈우가 옥영을 데리고 있게 된 지가 '4년'이라고 하였으므로, 옥영이 고향을 떠난 것은 1596년쯤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임진왜란(1592~1598년)의 기간에 속하므로, 이 작품의 사건은 전란과 유랑 체험의 역사적 실제성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p> <p>③ 최척이 일본인의 배를 찾아가게 된 것은 일본인의 배 안에서 '조선말'로 된 시 읊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또 옥영이 저절로 시를 읊게 된 것은 '조선의 곡조'로 된 피리 소리를 듣고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선말', '조선의 곡조'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사건의 배경이 타국(안남의 강가)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p> <p>④ 부부의 상봉을 지켜보며 놀라 소리치거나 함께 통곡하는 사람들은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며, 이들의 눈물은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으로 이해될 수 있다.</p> <p>⑤ 돈우가 옥영을 넘길 때 돈 받기를 사양하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양심을 보여주는 행위로, 임진왜란 당시 교전국이었던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배려를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p>



현대시 [33~37번 지문]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여 두안간일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79) #수능특강 사용설명서(p76)

[작품 '한 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정도로 가볍게-”

[작품 풀이]		
<p>이 작품은 어머니의 무덤가를 찾은 화자가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존재했던 것들이 사라진 곳에 남은 여백은 단순한 소멸의 의미가 아니라 추억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화자는 자신 또한 죽은 후에 타인에게 안식처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p>		
<p><b>[EBS 확인하기]</b> '무덤(어머니의 부재) → 둥근 여백(부재 뒤에 느끼는 추억) → 탄생(새로운 의미)'으로의 인식 전환을 파악해야 함.</p>		
주제	부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	
EBS 연계 POINT		
<p><b>[포인트1]</b> 부재에서 오는 쓸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화자가 죽음으로 인한 대상의 부재는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존재가 사라진 후의 쓸쓸함이 여백이 되어 남겨진 사람에게 추억과 위로를 건네고 새로운 의미의 시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어머니의 부재에서 느끼는 쓸쓸함</p>	<p>부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p> <p>⇒</p>	<p style="text-align: center;">남겨진 사람에게 건네는 추억과 위로</p>
<p><b>[포인트2]</b> '여백'의 의미 변화</p>		
<p style="text-align: center;">쓸쓸함</p> <hr style="border: 0.5px dashed gray;"/> <p style="text-align: center;">모든 뒤에 사라지는 것들</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탄생</p> <hr style="border: 0.5px dashed gray;"/> <p style="text-align: center;">부재 뒤에 떠오르는 새로운 의미</p>
<p>사라지는 것들이 남기는 '여백'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발견(인식의 전환)</p>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벽'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들이 될 수 있다."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EBS 확인하기]** '무덤'은 화자의 어머니가 부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소재로, 그 부재를 여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 등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tip]** 어머니의 여백이 남긴 것

'다시 더 큰 여백'은 '온갖 잔소리들'이 시냇물 따라 바다로 들어가고 보이지 않게 되는, 즉 잔소리들이 사라지며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큰 여백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생긴 불안 따위의 감정이 아니라 화자가 느낀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며 생긴 마음의 위안과 평안**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이 마음의 위안과 평안은 어머니의 여백으로 인한 것이므로, **여백을 '위로'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연 :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위안을 얻음**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EBS 확인하기]** '여백'을 '쓸쓸함'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여백이란 탄생이구나'라는 역설적 깨달음을 통해 '쓸쓸함'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연 : 여백의 의미에 대해 깨달음.**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EBS 확인하기]**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는 것은, 남겨진 타자에게 추억과 위로를 건네는 존재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3연 :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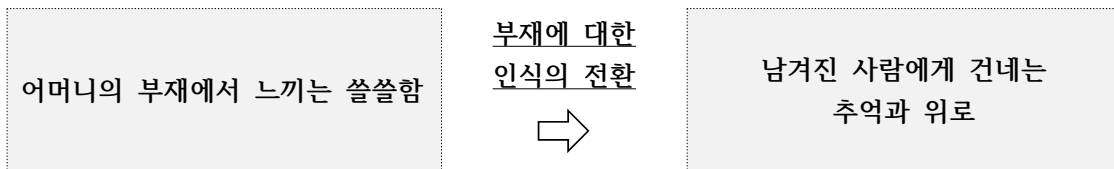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전생'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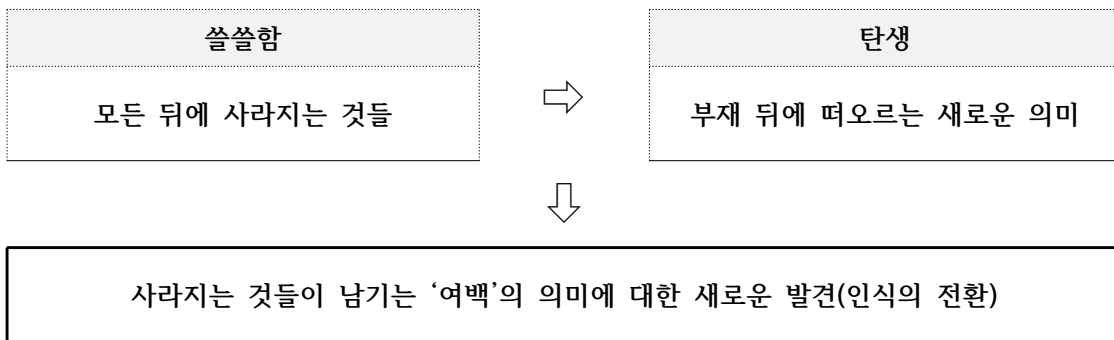
**EBS 연계 POINT**

**[포인트1] 부재에서 오는 쓸쓸함**

-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화자가 죽음으로 인한 대상의 부재는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존재가 사라진 후의 쓸쓸함이 여백이 되어 남겨진 사람에게 추억과 위로를 건네고 새로운 의미의 시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포인트2] '여백'의 의미 변화**



**[참고하기] EBS 'Q & A'**

<b>Q.</b>	<b>1연에서 감각적 심상이 전이되는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 변화를 드러낼 수 있나요?</b>
<b>A.</b>	1연을 읽고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전이시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이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에 대한 적절함을 판단하는 문항입니다.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은 화자가 겪은 도시의 소음, 갈등, 번뇌 등의 의미를 내포한 청각적 심상입니다. 이것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 막막공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등에서 '잔소리들'이 소멸해 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근심으로 인해 복잡했던 화자의 내면이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BS 핵심 문제	
<b>&lt;보기&gt;</b>	위 작품에서는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화자가 죽음으로 인한 대상의 부재는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존재가 사라진 후의 쓸쓸함이 여백이 되어 남겨진 사람에게 추억과 위로를 건네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b>발문</b>	<b>&lt;보기&gt;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b>
<b>해당 작품 선지</b>	<p>④ (나)의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인 '여백'에서 느끼는 '쓸쓸함'에 대해 '여백이란 탄생이구나'라는 화자의 깨달음은, '쓸쓸함'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p> <p>⑤ (나)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은, 타자에게 위로를 건네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가 무의미했음을 후회하는 것이겠군.</p>
<b>정답 해설</b>	⑤ (나)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는 것은, 남겨진 타자에게 추억과 위로를 건네는 존재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과거가 무의미했음을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 사회[38~42번 지문][등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의해 공시된다. 등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최초로 등기부에 올리는 등기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후에 소유권의 변동을 나타내는 등기이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변동의 요건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수 대금을 치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공신력이란 공시에 의해 권리자로 나타난 자에게 실제 권리가 있다고 믿고 행한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만드는 힘이다. 가령 위법 행위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가 이를 믿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면 상속 자체가 무효화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는 매도인에게 매수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거래 당사자는 거래할 때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아야 하므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소유한 자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등기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하는데,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이다. 즉 매수 자금을 조달한 자가 실제 소유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탈세나 부정한 거래에 악용된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실명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한다. 다만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에 임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소송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유형 중 하나가 계약 명의 신탁이다. 갑을 신탁자, 을을 수탁자라 하면, 계약 명의신탁은 갑과 을이 갑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되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먼저 맺고, 을이 매매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지 여부에 따라 매매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달라진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매매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을이 된다. 갑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매수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반면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 계약이 모두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매도인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매도인에게 매수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바로 이 매수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을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애초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른 경우, 을은 완전한 소유자로서 매도한 것이므로 갑에게 부동산 매수 자금을 반환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애초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안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는 부동산 매수 자금을 반환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을의 임의 매도는 원래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을이 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므로 손해 배상의 의무는 없다.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의해 공시된다. **등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최초로 등기부에 올리는 등기(C)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후에 소유권의 변동을 나타내는 등기(C)이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변동의 요건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수 대금을 치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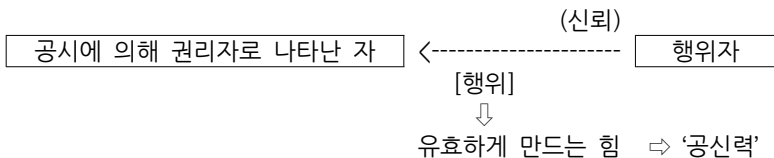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1문단은 의식적으로 꼼꼼하게 읽어줍니다. 등기의 종류가 두 가지 제시되었네요. 구분 지점을 잡는 게 어렵지 않으니 가볍게 정리해줍니다.
  - (1) **소유권보존등기** : 최초로 등기부에 올리는 등기 / (2)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등기
- ②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제시되었네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변동의 '요건'입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소유권 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④ 약간 새롭게 느껴질 수 있었던 부분은, 1문단에서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개념(**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을 제시 해주었을 때는 이후 지문도 두 개념의 대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문은 둘 중 하나의 개념(**소유권이전등기**)에 포커스를 두고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공신력**이란 공시에 의해 권리자로 나타난 자에게 실제 권리가 있다고 믿고 행한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만드는 힘(C)이다. 가령 위법 행위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가 이를 믿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면 상속 자체가 무효화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제3자는 매도인에게 매수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거래 당사자는 거래할 때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아야 하므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앞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의해 공시된다고 하였는데, 다음 문단의 첫 번째 줄에서 바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순되는 진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직 우리는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분하게 다음 문장까지 읽어줘야 합니다.
- ② '공신력'은 '공시에 의해 권리자로 나타난 자'에게 '실제 권리'가 있다고 믿고 행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이 문장 안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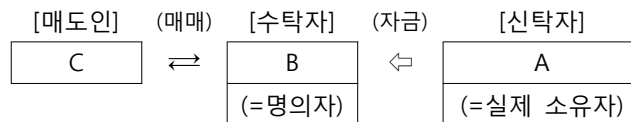


- ③ 자 다음에 바로 해당 사례가 나옵니다. 위에 정리해둔 관계에 다음의 사례를 연결시켜 봅시다. ‘공시에 의해 권리자로 나타난 사람’이 누가 될까요? ‘위법 행위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가 됩니다. 그럼 ‘행위자’는 누가 될까요? ‘제3자’가 됩니다. 이때 제3자의 ‘행위’가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 계약’이 모두 ‘유효한 행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 ④ 이러한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지문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진짜 상속자가 되겠지요.)는 ‘등기 명의자’(=위법 상속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는 ‘매도인’(=위법 상속자)에게 매수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 대상을 계속 다른 말로 바꿔서 진술하는 경우, 개속 연결연결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급하게 읽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시간을 쓰라고 만들어놓은 부분입니다.
- 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3자’ 입장에서 결국 시간만 날리고 계약은 못한 꼴이 됩니다. 이러면 짜증나겠죠. 그러니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계약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되면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⑥ 그래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의식(거래가 너무 번거로워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3자의 편의를 좀 봐주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 ⑦ 거기에 추가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추가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소유한 자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C)을 말한다. 이때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등기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하는데,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이다. 즉 매수 자금을 조달한 자가 실제 소유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탈세나 부정한 거래에 악용된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실명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한다. 다만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에 임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①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구성 요소(신탁자, 수탁자) 정확하게 파악하고 갑시다. 나중에 헛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을 대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 즉 ‘신탁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②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합니다.
- ③ 자 아직까지는 2문단에서 봤었던 ‘제3자’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제3자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니,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에 임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위의 상황과 관련된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에 임한 ‘제3자’가 나오겠군요.
- ④ 느껴지시죠. 내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뒤의 내용을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용이 급격히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면, 연결되는 내용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어려운 문장은 그 문장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이 안 쌓여 있어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소송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유형 중 하나가 **계약 명의 신탁**이다. 갑을 신탁자, 을을 수탁자라 하면, **계약 명의신탁**은 갑과 을이 갑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되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먼저 맺고, 을이 매매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C)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지 여부에 따라 매매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달라진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매매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을이 된다. 갑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매수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반면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 계약이 모두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매도인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매도인에게 매수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바로 이 매수 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계약 명의신탁의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차분히 따라가되, 머리로 정리가 안 되면 손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보기> 문제에서 유사한 혹은 동일한 사례를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② 전체적인 상황은 위문단의 상황과 동일하게 갑니다. 다만 ‘갑’과 ‘을’로 신탁자, 수탁자의 이름이 정해졌을 뿐입니다. 위에서 정리해놓은 상황에 이름만 바꿔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③ 두 가지 경우는 매도인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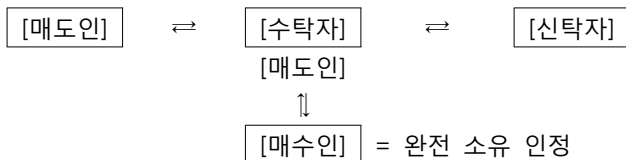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1. 명의신탁 약정 무효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불가능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 자금 반환 청구 가능 2. 매매 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유효 ⇒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됨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1. 명의신탁 약정 무효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매수 자금 반환 청구 가능 2. 매매 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 가능 ⇒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매수 자금 반환 청구 가능

- ④ 상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약정 무효or유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가 달라지고, ‘매매 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무효or유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가 달라지니, 이 부분만 잘 구분 및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편 을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인은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애초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른 경우, 을은 완전한 소유자로서 매도한 것이므로 갑에게 부동산 매수 자금을 반환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애초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안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는 부동산 매수 자금을 반환하는 것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을의 임의 매도는 원래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을이 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므로 손해 배상의 의무는 없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제3자’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매수인, 즉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와는 무관하게 매매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3자는 완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문장에서 뒷문단과의 연결 지점이 보입니다. 뒷문단의 2가지 경우가 여기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묶어서 정리 해주면 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 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유효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매수 자금을 반환하는 책임만 짐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 계약 /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매수 자금을 반환하는 책임만 짐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매도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 ⇨ 손해 배상의 의무는 없음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가족과 이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상대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다.
- ②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강조한다.
- ③ ㉢: 동물과 달리 쉽게 고향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 ④ ㉣: 불행한 일로 가득한 현실을 등지고 자연에 은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 ⑤ ㉣: 상대의 주장을 따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제시하며 반박한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옥영이 최척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근거이다.
- ② ㉡는 관군이 오랑캐에게 함몰되자 최척이 취한 행동이다.
- ③ ㉢는 ㉠을 접한 옥영의 절망감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④ ㉠은 옥영이 ㉡를 결심하는 계기이며, ㉢는 옥영이 조선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하는 계기이다.
- ⑤ ㉠은 옥영과 몽선 간의 갈등의 원인이며, ㉢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위한의 「최척전」은 전란으로 인해 헤어짐과 기적적인 만남이 되풀이된다는 뜻에서 「기우록(奇遇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작품은 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일본, 중국 등으로 흩어진 최척 가족의 삶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이산(離散)의 고통을 그리고 있다. 한편 작가는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가족과의 재회를 위해 분투하는 여성 인물을 등장시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최척을 구해 준 진위경이 최척의 ‘둘째 며느리’의 아버지임이 드러나는 것에서, 기적적인 만남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옥영이 마음을 바꾸어 ‘내가 본국으로 찾아가야겠다’고 한 것은, 최척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③ 전쟁으로 인해 ‘늙으신 시아버님과 홀어머니를 순식간에 이별하고 품속의 어린 아들마저 갑자기 잃어버렸다’는 옥영의 언급에서, 전쟁의 참상을 엿볼 수 있군.
- ④ ‘배를 집으로 삼아서 ‘장사를 하며 ‘물건을 팔았다’는 언급에서, 옥영이 가족과의 재회를 위해 조선으로 돌아갈 준비를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음을 알 수 있군.
- ⑤ 몽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파도도 내가 맡고 ‘배의 안전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언급에서, 조선으로 돌아가려는 옥영의 의지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군집화란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을 뜻한다. 군집화의 대표적인 예는 고객 세분화이다. 고객 세분화란 고객들을 비슷한 구매 성향을 가진 유형으로 나누는 것으로, 기업들이 각 유형에 알맞은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는 것과 같은 표적 마케팅을 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30-①

군집화를 하려면 먼저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거리 척도를 정해야 한다. 가령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세분화를 한다면, (구매 횟수, 평균 구매 금액, 제품 만족도) 같은 데이터(고객)의 특징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6, 3, ...)과 같은 수치 열로 변환한다) 임의의 두 데이터 간의 유사도는 여러 가지의 거리 척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유클리드 거리)이다. 유클리드 거리란 수치 열에서 (동일한 특징을 나타내는 (두 데이터의 수치의 차이)들을 제곱하여 모두 더한 값에 제곱근을 취한 값)이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거리가 멀수록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거리 척도를 정한 다음에는 데이터들을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군집화할지 선택한다. (군집화 알고리즘은 매우 다양하며, 데이터의 분포 특징이나 군집화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중 알맞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9-④

군집화 알고리즘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려면 먼저 데이터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3개의 군집으로 나누기로 했다면 임의로 3개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중심값)으로 설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데이터와 3개의 중심값의 거리를 비교하여 그중 가장 가까운 중심값의 군집에 각 데이터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가 3개의 군집으로 나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군집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구한다. 만약 어떤 군집에 각각 (2, 3)과 (3, 4)의 수치 열을 가진 두 개의 데이터만 있다면 (5/2, 7/2)이 평균값이 된다. 그다음에는 이 평균값을 (각 군집의 새로운 중심값)으로 삼아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반복한다. 이때 새로운 평균값이 이전의 평균값과 달라지지 않거나 (두 평균값의 차이가 미리 정한 기준치에 미달) 되면 과정이 종료된다. →31-②

K 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비교적 연산이 간단하므로 대용량 데이터를 군집화하는 데 유용하고, 각 군집의 평균값이 곧 해당 군집의 대푯값\*이므로 각 군집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각 군집의 분산\*이 비교적 작을 때에만 적절한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심값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인 이상치까지 군집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중심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군집화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없앨 수 있는 알고리즘 중 하나가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이다.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은 데이터들을 비교적 촘촘하게 위치한 것끼리 묶는 방식이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할 때에는 군집의 개수가 아니라 임실론 거리(ε-거리)와 최소 데이터 수 (MinPts)를 미리 정해야 한다.) 만약 ε-거리와 MinPts를 각각 3

→31-①  
→31-④  
→31-⑤  
↳30-③  
↓  
3  
↓  
4

과 4로 정했다면, 이 알고리즘은 임의의 데이터 P를 출발점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P에서 (반경 3 이내에 4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들을 모두 포함한 첫 번째 군집이 형성된다. 만약 P에서 반경 3 이내에 4개 이상의 데이터가 없다면 P 가까이 있는 다른 데이터를 출발점으로 삼아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 군집이 형성되면, 이 군집에 속한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반경 3 이내에 4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여 4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다면 모두 첫 번째 군집에 포함시킨다. 이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반경  $\epsilon$ -거리 이내에 MinPts 이상의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를 코어 데이터라 한다. 그런데 첫 번째 군집에 속한 데이터 중에서 Q는 반경 3 이내에 3개의 데이터밖에 없다고 하자. 이 경우 3개의 데이터 중 이미 첫 번째 군집에 포함된 것이 아닌 데이터는 첫 번째 군집에 (새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Q와 같은 데이터를 경계 데이터라 한다.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군집은 항상 코어 데이터와 경계 데이터로만 이루어진다. 첫 번째 군집에 속하지 않은 다른 데이터로부터도 이러한 방식으로 두 번째 군집이 형성될 수 있고,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으로부터 반경  $\epsilon$ -거리 이내에 MinPts 미만의 데이터만 있는 데이터는 이상치로 치부되어 별도의 분석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이상치가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데이터를 출발점으로 삼든,  $\epsilon$ -거리와 MinPts를 다르게 설정하지 않는 한, 군집화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 대푯값: 자료의 특징이나 경향을 가리키는 값. **↳ 30-㉔**  
 \* 분산: 각 데이터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 분산이 작을수록 데이터들이 평균값 주위에 더 모여 있고, 분산이 클수록 데이터 중에 평균값에서 멀리 떨어진 것들이 많다.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㉔

①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거리 척도 중에는 유클리드 거리가 가장 흔히 쓰인다. ○ **→ 지문 확인**  
 ② 대용량 데이터를 군집화할 때에는 비교적 연산이 간단한 유클리드 거리로 유사도를 나타내는 것이 유리하다. X **→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이다.**  
 ③ 동일한 데이터 집합을 군집화할 때에도 서로 다른 군집화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군집화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 군집화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④ 임의의 두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유클리드 거리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를 수치 열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 **→ 지문 확인**  
 ⑤ 데이터 1의 수치 열이 (6, 5)이고 데이터 2의 수치 열이 (4, 6)이라면, 두 데이터 간의 유클리드 거리는  $\sqrt{2^2+1^2}$ 이다. ○  
**→ 동일한 특질을 나타내는 수치들의 차이를 제곱하여 모두 합한 값에 제곱근을 씌움 값.**  
 $\Rightarrow \sqrt{(6-4)^2+(5-6)^2} = \sqrt{2^2+1^2}$

30. [군집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㉔

① 군집화를 통해 고객 세분화를 하는 것은 고객들의 특질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것이다. ○ **→ 지문 확인**  
 ② 군집화를 할 때 유사도를 나타내는 거리 척도가 없어도 데이터의 분포 특징에 걸맞은 군집화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다. X **→ 알고리즘 선택 0영역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③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군집화를 시행할 때에는 입실론 거리와 최소 데이터 수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 **→ 지문 확인**  
 ④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군집화를 시행할 때에는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지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된다. ○ **→ '출발점인 데이터만 정하면 군집의 개수는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⑤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군집화를 시행할 때에는 군집이 형성되는 순서가 달라져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군집화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  
**→ 입실론 거리와 최소 데이터 수만 동일하다면 결과 또한 동일하다.**

**↳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과 혼동 X!!**  
 31.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㉔

①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X **→ 모든 데이터가 군집화된다.**  
 ② 각 군집의 평균값이 서로 동일해지면 과정이 종료된다. X **→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의 평균값과 같은 경우.**  
 ③ 군집의 개수를 늘릴수록 각 군집의 분산이 커질 것이다. X **→ 0영역이 작아진다.**  
 ④ 이상치를 군집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X  
 ⑤ 초기에 설정하는 중심값이 다르면 각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 ○ **→ 지문 확인**

3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㉔

**↳  $\epsilon$ -거리와 MinPts에 유의할 것임**

<보기>

각 데이터의 특질이 2개인 데이터 집합을 밀도 기반 군집화 알고리즘으로 군집화하려고 한다. 거리 척도는 유클리드 거리로,  $\epsilon$ -거리는 2, MinPts는 5로 정했을 때, 데이터 집합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2차원 좌표 평면에 나타났다. 단, 검은색 점은 각각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점선으로 그려진 원은 각각 데이터 A, B, D, E를 중심으로 하고 반경이  $\epsilon$ -거리인 원을 나타낸다.

**입실론 거리: 2**  
**최소 데이터 수: 5**

① 데이터 A와 데이터 E는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하겠군. ○ **→ 거리에 걸리지 않는 다른 원 형성.**  
 ② 데이터 A와 B는 각각 코어 데이터와 경계 데이터이겠군. ○  
 ③ 데이터 C와 D는 모두 이상치로, 별도의 분석 대상이 되겠군. ○  
 ④  $\epsilon$ -거리만 2보다 크게 하면 군집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겠군. X  
 ⑤ MinPts 만 5보다 크게 하면 이상치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겠군. ○  
 ㉔: A는  $\epsilon$ -거리 안에 6개의 데이터(6>MinPts)가 있으므로 코어 데이터. 그러나 B는 A와 같은 환경에 속해있지만  $\epsilon$ -거리 안에 4개밖에 없으므로 (4<MinPts) 경계 데이터.  
 ㉔: C는  $\epsilon$ -거리 안에 4개, D는 2개로 둘 다 최소 데이터 수보다 적으므로 이상치다.  
 ㉔:  $\epsilon$ -거리가 2보다 커지면 최소 데이터 수를 충족시키는 데이터의 수가 늘어날 것이므로 군집의 개수가 오해될 줄어든다. 늘어날 수는 없다.  
 ㉔: 최소 데이터 수가 늘어나면 이를 충족시키기 못하는 데이터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곧 이상치의 개수의 증가를 이룬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저 자 이승모, 최상훈  
펴 낸 곳 한국교육평가인증  
전 화 02-3401-8900  
홈페이지 [www.kydi.co.kr](http://www.kydi.co.kr)